

退溪의 河圖洛書論과 그 性理學的 의의

林 炳 學*

차례

1. 들어가는 말
2. 河圖洛書의 圖說과 河圖行合
3. 河圖洛書의 體用관계
4. 河圖洛書의 數理와 卦爻
5. 河圖洛書와 性理學 사이의 상관관계
6. 맺음말

【국문초록】

退溪는 『啓蒙傳疑』을 저술하여 宋代 朱子の 圖書易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河圖洛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자신의 易學이 『周易』에서 밝히고 있는 河圖洛書原理에 근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河圖 도설에서 밝힌 ‘河圖行合說’은 河圖가 天地陰陽의 合德原理를 위주로 표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며, 洛書 도설에서 밝힌 南西가 서로 변하여 통한다는 ‘南西通變’은 ‘金火相爲用’의 원리를 밝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河圖와 洛書가 서로 體用의 관계라는 ‘圖書相爲體用’은 朱子の 『易學啓蒙』을 계승한 것이며, ‘九 金’과 ‘七 火’가 서로 交易되는 ‘金火相爲用’을 밝힌 것은 河圖洛書에 대한 퇴계역학의 독창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河圖洛書와 卦象의 관계에서 퇴계는 항상 河圖洛書의 理數에 근원하여 卦가 이루어 졌다는 ‘卦源於數’와 理數로 인하여 卦가 나누어졌다는 ‘因數分卦’를 주장하여, 河圖의

* 충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理數로 인해 先天八卦의 원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퇴계는 性理學의 핵심 개념인 太極, 理氣, 心性 등을 설명하면서 河圖洛書의 도상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太極圖를 설명하면서 河圖洛書의 圖象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며, 理氣論에서는 太極(理)과 兩儀(氣)를 직접 河圖의 理數에 결부하여 밝혔으며, 心性論에서도 河圖洛書 도상에 표상된 四象原理와 四德原理를 결부하여 해명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河圖洛書의 연구를 통해 『周易』에 秘藏된 聖人之道의 은미하고 오묘한 뜻을 열어서 밝히고, 또한 더 나아가 易道의 새로운 경지를 발명하였다. 이는 漢代 이후 易學史에서 망각된 河圖洛書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易學史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退溪, 易學, 河圖洛書, 河圖行合, 圖書相爲體用, 金火相爲用, 卦源於數

1. 들어가는 말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退溪哲學을 연구하는 의미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退溪哲學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 本性 상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退溪哲學의 근거가 되는 退溪易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존재에 대한 解明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존적 人間은 時間과 空間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¹⁾ 인간 존재의 해명도 시간적 지평과 공간적 지평에서 밝혀질 것이다.

1) 인간뿐만 아니라 天地間에 드러난 모든 존재는 時間과 空間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고 있

시간적 지평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는 天道가 밝혀지며, 공간적 지평에서는 인간의 性命의 이치가 밝혀지게 된다.²⁾

『周易』에서는 河圖洛書로 표상되는 數理체계를 통해³⁾ 시간적 지평인 天道를 밝히고, 卦爻로 표상되는 卦象체계를 통해 공간적 지평인 性命之理를⁴⁾ 밝히고 있다. 漢代 이후 易學史에서 논의된 象數易學과 義理易學도 시간적 지평과 공간적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漢代 象數易學은 물리적 자연법칙을 밝히는 象數論에 치우치거나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讖緯의인 것으로 전락하여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를 간과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으며,⁵⁾ 義理易學은 河圖洛書가 표상하는 數의 철학적 의미까지도 배격하고 性命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를 해명하고자하여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退溪易學은 象數와 義理 중 어느 한 가지는 필요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필요 없다는 식의 상호배제의 해석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理數并重'의 입장에서⁶⁾ 河圖洛書의 數

기 때문에 『大學』 經一章에서는 “物에는 本末이 있고, 事에는 終始가 있으니 그 先後하는 바를 알면 道에 가깝게된다.”(“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 | 면 則近道矣리라.”)라고 하여, 本末의 공간과 終始의 시간이 만물의 존재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 2) 『周易』에서는 “한 번은 陰으로 작용하고 한 번은 陽으로 작용하는 것을 일러 道라 하며, 계승해 가는 것이 좋고, 이루어 가는 것이 性이다.”(“一陰一陽之謂 | 道 | 니 繼之者 | 善也 | 오 成之者 | 性也라” 『繫辭上』, 第五章)라고 하여 陰陽原理인 天道가 人間本來性으로 主體化됨을 말씀하여 天道에 근거하여 인간이 존재함을 밝히고, 『中庸』에서도 “인간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天道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思事親인댄 不可以不知人이오 思知人인댄 不可以不知天이니라” 第二十章)라고 하여, 시간적 지평인 天道와 공간적 지평인 性命之理(人道)가 일체적임을 알 수 있다.
- 3) 『周易』, 繫辭上篇, 第九章에서는 天數(天道)와 地數(地道)에 의해 구성된 河圖洛書原理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4) 『周易』, 說卦, 第二章,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니 立天之道曰陰與陽 | 오 立地之道曰柔與強이오 立人之道曰仁與義니”
- 5) 柳南相, 「正易思想의 根本問題」, 『論文集』, 제7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0, p.228.
- 6) 정병석, 「周易에 대한 退溪의 義理的 觀點」, 『退溪學報』, 제115집, 퇴계학연구원, 2004, p.104.

로 표상되는 天道를 연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간 性命의 이치를 밝혀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였던 것이다.

退溪는 宋代 圖書易學을 집성한 朱子の 河圖洛書와 先后天易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易學體系를 정립하였지만,⁷⁾ 퇴계는 주자의 역학사상을 수용하면서도 문헌을 통해 재 고증하고 또 검토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하여서는 겸허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적 역학체계를 정립하였다.⁸⁾ 즉, 퇴계는 『啓蒙傳疑』를 저술하여 朱子の 『易學啓蒙』의 은미한 뜻을 밝혀내는 한편, 그것을 통해 자신의 易學思想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啓蒙傳疑』는 『易學啓蒙』의 체계에 따라 ‘本圖書’, ‘原卦劃’, ‘明蓍策’, ‘考變占’의 순서로 그 항목을 배열하고, 河圖洛書와 卦象의 오묘한 뜻을 밝혀 蓍數推衍의 이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易道의 새로운 경지는 계발하였다.⁹⁾

특히 朱子の 易學이 孔子의 『周易』 繫辭篇에 근본적으로 연원하였듯이 退溪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易學체계를 세우는데 『周易』을 근본으로 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退溪가 밝힌 河圖洛書說의 근거가 『周易』에 직접적으로 연원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유들의 학문방법은 孟子가 제시한 것으로 맹자는 “군자는 경전으로 돌아갈 뿐이니 경전이 바른 즉 서민이 흥하고 서민이 흥하면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¹⁰⁾하여 후세 학자의 학문방법으로 ‘反經(경전으로 돌아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¹⁾

7) 朱子가 『주역』을 卜筮에서 출발하고 있는 책으로 보는 반면에, 퇴계는 기본적으로 『주역』을 인간의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완성의 문제들을 다루는 修身書로 간주하였던 것이다(정병식, 앞의 논문, p.96).

8) 金益洙, 『退溪의 易學觀(1) - 圖·書論을 중심으로』, 『퇴계학연구』, 제3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 p.56.

9) 柳南相, 『李退溪之啓蒙傳疑研究』, 『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第四輯, 臺灣國立師範大學, 1979, p.281 참조.

10) 『孟子』, 盡心章句下, “君子 反經而已矣 經正則庶民 興 庶民 興 斯無邪慝矣.”

11) 맹자는 자신의 핵심적 철학인 ‘性善說’을 말하면서 반드시 先 聖人인 堯·舜이 밝힌 도

이에 본고에서는 反經의 방법으로 退溪의 河圖洛書論과 그 性理學的 的의를 고찰하면서 『계몽전의』를 중심으로 먼저 河圖洛書의 圖說과 河圖行合의 문제를 고찰해보고, 제3장에서는 河圖洛書의 관계에 대하여 논급하고자 하며, 제4장에서는 河圖洛書의 數理와 卦爻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河圖洛書와 性理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2. 河圖洛書의 圖說과 河圖行合

퇴계는 손자 安道에게 답하는 글에서 “다만 네가 『周易』을 읽을 적에 깨끗하고 정밀한 뜻과 河圖洛書와 劃卦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講席에 응답하는 계책으로 삼을 뿐이니 가히 안타까운 일이다.”¹²⁾라 하고, “네가 『주역』을 읽으면서도 河圖洛書와 劃卦의 원리와 깨끗하고 정밀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 한스럽다……”¹³⁾라고 하여, 易學의 학문적 탐구과제인 易道를 표상하는데 있어서 河圖洛書의 數理를 통한 방법과 卦象(卦爻)을 통한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易道의 표상방법은 『周易』에서 직접 밝힌 것으로 『周易』에서는 “易은 逆數이다.”¹⁴⁾라 하고, “易은 象이다.”¹⁵⁾라 하였으며, 또 六爻로 표상되는 易道에 대하여 “六爻의 움직임은 三極之道이다.”¹⁶⁾하고, “六爻는 다

에 근거 하고 있음을 볼 때(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孟子』, 滕文公上) ‘경전으로 돌아가는 反經’의 학문 방법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退溪全書』, 권7, 書, 答安道孫, “但汝於讀易, 未知潔淨精微之義, 圖書卦畫之原, 只看作講席應答之計, 爲可惜耳.”

13) 『退溪全書』, 권40, 書, 與安道孫 “又與書言汝讀易而不知圖書卦畫之原, 潔淨精微之義爲可恨云云.”

14) 『周易』, 「說卦」, 第三章, “是故 易 逆數也.”

15) 『周易』, 「繫辭下」, 第三章, “易者 象也.”

16) 『周易』, 「繫辭上」, 第二章,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른 것이 아니라 三才之道이다.”¹⁷⁾라 하여, 하나의 易道를 三極之道와 三才之道로 표상하였다. 여기서 三極之道는 數理로 표상되는 河圖洛書原理를 의미하며, 三才之道는 卦象을 표상되는 卦爻原理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易道の 표상 범주인 時間과 空間의 의미로 고찰하면, 河圖洛書의 數理로 표상되는 三極之道는 時間原理를 위주로 天道를 표상하는 것이라면, 卦象으로 표상되는 三才之道는 空間原理를 위주로 人道인 性命之理를 표상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⁸⁾

따라서 퇴계는 河圖洛書로 표상되는 理數¹⁹⁾와 卦象을 표상되는 卦爻를 통해 『周易』의 학문적 탐구과제인 易道를 밝히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門人 鄭子中에게 보내 글에서 “河圖와 洛書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곧 理數의 근원이고 성인이 『周易』 기사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버리고 『周易』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²⁰⁾라고 하여, 『주역』 繫辭에 말씀된 河圖洛書에 근원하여 易學의 학문체계를 세웠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河圖洛書의 연원과 그 圖象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자. 퇴계는 河圖洛書의 연원에 대하여

“河圖洛書의 상서로움이 나타나면서 복희씨와 하우씨가 이것으로 인하여 『주역』과 홍범을 지으시니 …… 이로 말미암아 보건데 河圖洛書의 저작은 모두 하늘의 뜻(天意)에서 출현한 것이고 반드시 聖인이 지은 然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²¹⁾

17) 『周易』, 「繫辭下」, 第十章,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

18) 李鉉中, 「易學의 曆數原理와 卦象原理」, 『동서철학연구』, 제29호, 한국동서철학회, 2003, p.112 참조.

19) ‘理數’는 이치를 나타내는 數라는 의미로 先秦儒學 경전에서는 ‘曆數’(『書經』 大禹謨, 『論語』 堯曰)라고 표현한다. 理數의 의미는 數가 단순한 시간적 計量의 단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원리를 표상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數 자체에 계산수(自然數)와 理數(曆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근원적으로 數란 철학적 원리를 상징하는 표상체계라고 할 것이다.

20) 『退溪全書』, 권25, 書, 答鄭子中別紙, “至於河圖洛書, 乃理數之原, 聖人於繫辭既明言之, 其不可舍此而學易, 明矣.”

라고 하여, 漢代 중엽 劉欽에 의해 확정된 ‘伏羲河圖說’과 ‘夏禹洛書說’이 十數·九數사상과 연계되어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송대 朱子에 의해 河圖는 『周易』 繫辭上篇 제9장에 언급된 ‘天地之數인 十數, 그리고 洛書는 『書經』 洪範九疇의 九數를 표상한 것이라고 규정한 전통적인 학설을 계승하고 있다.²²⁾

그리고 “생각하옵건대 道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으니 河圖洛書의 출현으로부터 聖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卦爻를 지으니 易道가 비로소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²³⁾라고 하여, 河圖洛書를 통해 말이 없는 하늘의 뜻을 표상함으로써 천하에 易道가 드러나게 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孔子가 繫辭上篇 제10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河圖洛書는 하늘이 내린 神物로 聖인이 이것을 범받아 天地變化原理를 표상하고 있음’²⁴⁾을 계승한 것이며, 說卦 제1장에서는 “옛날에 聖인이 『周易』을 지음에 神明한 德에 그윽이 참여하여 그것으로 蓍를 낳았으며, 參天兩地의 數에 의지하고, 陰陽의 변화에서 卦를 세웠으며, 剛柔作用을 발휘하여 爻를 表象하였으며”²⁵⁾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聖인이 河圖洛書의 理數와 卦爻를 통해 易道를 표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몽전의』에서는 河圖의 圖象과 표상 내용에 대하여

“말하기를 氣는 이이고 운행은 五이니 一三五七九는 陽의 운행이며 二四六八

21) 『退溪全書』,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敘附圖, “河洛呈瑞, 羲禹因之而作易範, …… 由是觀之, 圖書之作, 皆出於天意而必有聖賢者作, 然後始可爲也.”

22) 金滿山, 「易學의 時間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26.

23) 『退溪全書』, 권7, 筮, 進聖學十圖筮并圖, “臣竊伏以道無形象, 天無言語, 自河洛圖書之出, 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

24) 『周易』, 「繫辭上」, 第十一章,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25) 『周易』, 「說卦」, 第一章, “昔者聖人之作易也에 幽贊於神明而生蓍하고 參天兩地而倚數하고 觀變於陰陽而立卦하고 發揮於剛柔而生爻하니.”

十은 陰의 운행이니 그는 五가 아니면 능히 변화할 수 없고 五는 二가 아니면 능히 스스로 운행할 수 없으니 五라는 것은 五行이다. 天地陰陽이 待對의 定體이고 一로부터 十까지는 陰陽이 流行하는 次序를 말한 것이니 이것에 의거한 즉 합덕 운행(行合)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生數 一二三四五가 成數 六七八九十로 합덕된 것을 이룬 것이니 모두 數의 流行이 이어서 차례하고 합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덕운행이라 이른다”²⁶⁾

라고 하여, 河圖의 圖象은 一과 六·二와 七·三과 八·四와 九·五와 十이 각각 合德하여 운행하는 원리를 표상한다는 ‘河圖行合’을 밝히고 있다.

퇴계의 하도행합설은 『주역』 계사상편 제9장의 天地之數章에 근원한 것으로 제9장에서는 “天數는 一이며, 地數는 二이고, 天數는 三이며, 地數는 四이고, 天數는 五이며, 地數는 六이고, 天數는 七이며, 地數는 八이고, 天數는 九이고, 地數는 十으로 무릇 天數는 다섯이고, 地數도 다섯이다. 天地의 數가 각각 다섯 位에서 서로 合得하니 天數는 二十五이고 地數는 三十으로 무릇 天地의 數는 五十五이다. 이것이 變化를 이루는 所以며 鬼神을 行하는 所以(原理)이다.”²⁷⁾ 하였으니, ‘行’은 ‘鬼神을 行하는’의 行에 근거하고, ‘合’은 ‘서로 合得하니’의 合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는 『계몽전의』에서 節齋 蔡氏의 설을 인용하여 河圖의 圖象은 一과 六·二와 七·三과 八·四와 九·五와 十이 합해져 있으니, 이는 모두 數의 流行의 順序로 五行이 生成되고, 陰陽이 配合하여 方位가 分配된 것으로 이것이 ‘河圖行合’의 이치임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26) 李滉, 『啓蒙傳疑』, 本圖書第一, 河圖行合節, “曰氣有二而行有五, 一三五七九者陽之行也, 二四六八十者陰之行也, 二非五不能變化, 五非二不能自行, 五者, 五行也, 天地陰陽待對之定體, 自一至十者, 陰陽流行之次序云云 據此則行合, 只是謂以生數一二三四五, 合成數之六七八九十, 皆以數之流行次第而合, 故云行合.”

27) 『周易』, 『繫辭上』, 第九章,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다음으로 洛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모두 이르기를 北東의 六八은 陰數로 그 몇몇함을 지키는 까닭에 바뀌지 않고 西南의 七九는 陽數로 변화에 통하는 까닭에 서로 옮겨가니 두 가지 說이 다른 것은 대개 주자는 生數를 위주로 말한 것이고 玉齋胡(옥재호)씨는 成數를 위주로 말한 까닭이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요체는 두 가지 說이 서로 기다리는 것이니 그 뜻의 시작은 갖춰진 것이다.”²⁸⁾

즉, 퇴계는 洛書에 대한 선유들의 諸說에 대하여 비평하면서 一과 九·二와 八·三과 七·四와 六이 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圖象에서 北東의 六水·八木은 河圖 도상의 위치와 바뀌지 않고, 南西의 七火·九金은 변화하여 통하게 된다는 ‘南西通變’을 밝히고 있다.

또한 퇴계는 “2·9·4, 7·5·3, 6·1·8은 석자씩 잇대어야 마땅하다 대개 洛書를 가로 질러서 셋으로 나누어 말한 것은 구궁을 분떠서 명당제도를 만드는 것이 마치 고을의 정전을 그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²⁹⁾라고 하여, 洛書가 명당제도와 고을의 井田法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수용하였다.

河圖와 洛書의 방위와 음양의 生成과 消滅에 대하여 “대체로 일찍이 생각해 보건대, 河圖洛書의 방위가 저와 같은 이유를 말하자면, 모든 陰陽의 消長이 아래로부터 生하여 동쪽 좌변에서 점점 자라고 남쪽 상변에서 가장 성하며, 위로부터 息하여 서쪽 우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북쪽 하변에서 극도로 쇠하기 때문에 河圖洛書의 방위는 오직 이것만을 형상하기 위한 것뿐입니다.”³⁰⁾

28)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三同二異節, “則皆謂北東六八, 陰守其常故不易, 南西七九, 陽主通變故互遷, 二說不同者, 蓋朱子主生數而言, 胡氏主成數而言故也, 然要其歸, 兩說相須, 其義始備.”

29)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明堂篇, “二九四 七五三 六一八 此語當以每三字聯續 蓋橫截洛書爲三而言之 謂法九宮爲明堂之制 如畫州井地之爲也.”

30) 『退溪全書』, 권18, 答奇明論改心統性情圖, “蓋嘗思之, 河洛方位之所以如彼, 凡陰陽之消長, 自下以生, 漸長於東左, 而最盛於南上, 自上而息, 漸消於西右, 而極衰於北下, 故圖

라고 하여, 河圖와 洛書가 음양의 消長을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퇴계는 주자의 河圖洛書說을 수용하고 있지만, 河圖 도상에서 밝힌 ‘河圖行合’은 河圖가 天地陰陽合德原理를 위주로 표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闡明한 것이며, 洛書 도상에서 밝힌 南西가 서로 변하여 통하는 ‘南西通變’은 퇴계역학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金火相爲用’의 원리를 밝히는 기초가 되었다.

3. 河圖洛書의 體用관계

퇴계는 『계몽전의』에서 河圖와 洛書의 관계에 대하여

“雲莊(운장)이 體와 用을 나는 것이 주자와 같지 않은 것은 주자는 ‘河圖의 偶數는 高요하여 본체가 되고 洛書의 奇數는 同하여 작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劉歆은 洛書의 나뉘어서 각기 제 곳에 있는 것을 본체로 삼고, 河圖는 합치어 같이 그 方所에 있는 것을 작용으로 삼았다. 대개 유희의 설도 한 뜻이 되니, 河圖와 洛書가 서로 본체와 작용이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³¹⁾

라고 하여, 운장, 유희 그리고 朱子가 밝힌 體用說을 모두 긍정하면서, 河圖와 洛書가 서로 體用的 關係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圖書相爲體用’은 朱子가 『역학계몽』에서 말한 “유희가 말하기를 복희씨가 天命을 계승하여 왕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河圖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그린 것이 八卦이며, 夏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이 주신 洛書를 받아 그것을 법칙으로 하여 펼친 것이 홍범구주이다. 河圖와 洛書는 서로 經緯가 되며 八卦와 九章

書方位, 惟以象此而已.”

31) 李滉, 『啓蒙傳疑』, 本圖書第一, 八卦全不用十節, “雲莊分體用, 與朱子不同, 朱子以圖之偶爲靜爲體, 書之奇而動爲用, 劉氏以書之分而各居其所爲體, 圖之合而同處其方爲用, 蓋劉說亦是一義, 乃圖書相爲體用者然也.”

은 서로 表裏가 된다.”³²⁾는 것을 수궁하여, 河圖와 洛書는 經緯가 되고, 八卦와 九疇는 表裏가 된다는 經緯表裏說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河圖와 洛書의 體用관계는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圖象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河圖는 本體數인 十五를 중심으로 一과 六·二과 七·三과 八·四와 九가 각각 陰陽으로 合德되어 四象작용하는 本體原理를 위주로 표상한 것이라면, 洛書는 작용의 主體인 五를 본체로 하여 一과 九·二과 八·三과 七·四와 六이 각각 대응하여 四象이 分生작용함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河圖와 洛書가 體用的 관계임이 알 수 있다.³³⁾

그리고 제자 우경선에게 답하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劉欽 운운 小註에 陳氏의 이른바 ‘서로 正과 變이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제가 고찰하기로는 河圖를 위주로 말하면 河圖의 對待관계가 ‘正’이 되고 洛書의 流行이 ‘變’이 되며, 洛書를 위주로 말하면 洛書의 流行이 ‘正’이 되고 河圖의 對待가 ‘變’이 되는데 그 주된 바에 따라 말한 것이 다르다고 여겨집니다만. 아마 그럴 것이요.”³⁴⁾

위 인용문에서 河圖洛書를 ‘正’과 ‘變’으로 설명하면서, 河圖洛書가 陰陽對待의 관계와 같이 互相體用的 관계임을 밝혀, 河圖가 體가 되면 洛書가 작용하고, 洛書가 體가 되면 河圖가 작용하게 되는 원리임을 밝힌 것이다.

河圖洛書의 互相體用관계는 河圖가 十五를 本體로 一과 六·二와 七·三과 八·四와 九가 네 방위에서 四象작용하지만, 그 사이에는 洛書의 본체수인 五가 전제되어 洛書를 근거로 河圖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洛書는

32) 『易學啓蒙』, 本圖書第一, “劉欽云, 伏羲氏繼天而王, 受河圖而劃之, 八卦是也, 禹治洪水, 法而陳之, 九疇是也, 河圖洛書, 相爲經緯, 八卦九疇, 相爲表裏.”

33) 林炳學, 「易學의 河圖洛書原理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141.

34) 『退溪全書』, 권31, 書, 答禹景善問目啓蒙, “劉欽云云, 小註, 陳氏曰, 互爲正變, 性傳按, 主河圖而言, 則河圖之對待爲正, 洛書之流行爲變, 主洛書而言則洛書之流行爲正, 河圖之對待爲變, 蓋其所主而言者異也, 恐如此”

五를 본체로 一과 九·二와 八·三과 七·四와 六이 각각 대응하여 四象이 分生작용하지만, 그 대응된 數와 가운데 五의 합이 언제나 河圖의 본체수인 十五가 됨으로 河圖를 근거로 洛書가 작용됨을 알 수 있다.³⁵⁾

또한 퇴계는 “渥은 體用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道理에 나아가 말한다면, 텅 비어 아무 조짐이 없는 가운데 萬象이 뿔뿔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體와 用이다. 사물에 나아가 말한다면, 배가 물위에서 다닐 수 있고, 수레가 육지에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이 배와 수레의 體와 用이다.”³⁶⁾라고 하여, 體用에는 道理와 事物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저 體와 用 두 글자는 살아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며, 원래 포함하지 않음이 없어서 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³⁷⁾고 하여, 형이상하의 세계가 體用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易學의 학문적 논리체계가 體用의 원리임을 밝히고 있다.³⁸⁾

『周易』에서는 “乾坤은 易道の 門이다. 乾은 陽의 존재이고 坤은 陰의 존재이다. 陰陽이 合德함으로서 剛柔의 本體가 있게 된다.”³⁹⁾라고 하여, 陰陽이 合德함으로써 剛柔作用의 本體가 된다고 하여 陰陽과 剛柔가 體用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 重天乾卦(☰)에서는 “仁을 體로 하여 죽지 사람들의 어른이 되며”⁴⁰⁾라고 하고, 十을 體로 해서 九를 쓴다는 의미에서 ‘用九’⁴¹⁾라 하였으며, 重地坤卦(☷)에서는 “위를 바르게 하고 體에 거처하여”⁴²⁾라고 하고, 五를

35) 李鉉中, 「曆數原理의 표상인 圖書原理」, 제24집 제2권,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2001, p.267.

36) 『退溪全書』, 권41, 「잡지」, 心無體用辯, “渥謂體用有二, 有就道理而言者, 如沖漠無朕而萬象森然已具, 是也, 就事物而言者, 如舟可行水, 車可行陸, 是也.”

37) 『退溪全書』, 권41, 「잡지」, 心無體用辯, “夫以體用二字, 活非死法, 元無不該, 妙不可窮.”

38) 송인창, 「퇴계 리기론의 역학적 이해」, 『철학논총』, 제26집, 새한철학회, 2001, p.43.

39) 『周易』, 「繫辭下」, 第六章, “子曰乾坤은 其易之門邪 ㄴ더 乾은 陽物也 ㄴ오 坤은 陰物也 ㄴ니 陰陽이 合德하야 而剛柔 ㄴ有體라.”

40) 『周易』, 「重天乾卦」, 文言, “體仁이 足以長人이며”

41) 『周易』, 「重天乾卦」, 爻辭, “用九는 見群龍호되 无首하면 吉하니라.”

體로 해서 六을 쓴다는 의미에서 ‘用六’⁴³⁾이라 하여, 易學의 학문적 체계가 體用의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퇴계는 五行生成原理와 결합된 河圖洛書의 도상에서 河圖는 북쪽에 一六 水·남쪽에 二七 火·동쪽에 三八 木·서쪽에 四九 金·중앙에 五十 土로 되어 있고, 洛書는 太陽數 一九·少陰數 二八·少陽數 三七·太陰數 四六이 각각 서로 마주보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릇 수의 九·七은 이미 그 방위가 바뀌었다. 卦의 乾坎卦는 이에 數를 따라 그 방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金火가 서로 작용이 되어 數가 바뀌는 것이며, 방위가 나누어 정해져 卦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⁴⁴⁾

위 인용문에서 퇴계는 河圖洛書 도상과 주자의 ‘位數分卦之圖’를 설명하면서 ‘九 金’과 ‘七 火’가 서로 交易되는 ‘金火相爲用’을 밝힌 것은 河圖洛書에 대한 퇴계 역학의 독창적 해석이라 하겠다. 이것은 앞에서 洛書 도상을 설명한 ‘南西通變’을 발전시킨 것으로 河圖洛書의 數와 卦象의 관계까지 포괄하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河圖洛書 도상에 표상된 ‘金火相爲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數에 있어서 河圖는 一에서 十까지이고, 洛書는 一에서 九까지 數이며, 방위에 있어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이다. 모두 세 자리가 같고 두 자리가 다른 것이니 河圖洛書의 一과 六은 모두 북쪽에 자리하고, 三과 八은 모두 동쪽에 자리하고, 五는 모두 가운데 있으니 세 자리의 수는 모두 같은 자리이다. 河圖의 二와 七은 남쪽에 자리하고 洛書의 二와 七은 서쪽에 자리하며, 河圖의 四와 九는 서쪽에 자리하고 河圖의 四와 九는 남쪽에 자리하니 두 자리의 수는

42) 『周易』, 「重地坤卦」, 文言, “正位居體하야.”

43) 『周易』, 「重地坤卦」, 爻辭, “用六은 利永貞하니라.”

44)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兩說異同之辨節, “夫數之九七, 既易其方矣, 卦乾坎乃不隨數以易方何也, 金火相爲用, 數可易也, 方位有定分, 卦不可易也.”

모두 다르다.”⁴⁵⁾라고 하여, 남쪽의 二·七(火)과 서쪽의 四·九(金)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과 火가 서로 위치를 바꿔 작용하는 이치는 河圖洛書의 관계와 河圖洛書와 卦圖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命題이므로, 易道의 비장된 뜻이 여기에 있으니 퇴계가 『계몽전의』에서 그 명제를 표출하여 韓國易學의 數理的 특징을 공고하게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⁴⁶⁾

4. 河圖洛書의 數理와 卦爻

본 장에서는 河圖洛書의 理數와 卦爻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河圖洛書와 『주역』의 卦와 관계에 대하여

“八卦는 (河圖의) 十數를 온전히 쓰지 않았으니 이 말은 곧 河圖로써 八卦를 그었다는 것이다.”⁴⁷⁾

“또한 聖人이 河圖로 인하여 卦를 긋고 洛書에 인하여 九疇를 펴니라 하였으니 …… 그것은 洛書에 인하여 洪範九疇의 차례가 정해졌다는 뜻이다.”⁴⁸⁾

라고 하여, 河圖의 理數로 인해 先天八卦의 원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洛書로 인하여 왕도정치원리를 밝힌 『書經』의 洪範九疇가 차례된 것임을 밝히고, 이어서 『주역』의 卦가 河圖洛書의 理數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

45) 『退溪全書』, 권6, 書, 答李宏仲, “數則河圖自一至十, 洛書自一至九之數, 位則東西南北中央之位, 皆三同而二異者, 圖書之一六皆在北, 三八皆在東, 五皆在中, 三者之位數皆同也. 圖之二七在南而書則二七在西, 圖之四九在西而書則四九在南, 二者之位數皆異也.”

46) 柳南相, 「李退溪之啓蒙傳疑研究」, 『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第四輯, 臺灣國立師範大學, 1979, p.298.

47)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河圖行合節, “八卦全不用十, 此言則圖以畫卦也.”

48)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玉齋圖書之象 當位不協卦 不當位協卦之辯節, “亦云聖人因河圖而畫卦, 因洛書而敘疇 …… 其於因書敘疇之意.”

게 밝히고 있다.

“하물며 卦는 數에 근원하고 卦가 이루어진 이후에 방위가 나누어 배치된다.”⁴⁹⁾

“내가 살펴 보건데 이 장은 수로 인하여 卦가 나누어지는 것이 최고로 요긴한 뜻이 된다.”⁵⁰⁾

위 인용문에서 河圖洛書의 理數에 근원하여 卦가 이루어 졌다는 ‘卦源於數’과 理數로 인하여 卦가 나누어졌다는 ‘因數分卦’는 퇴계가 河圖洛書와 卦爻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 하겠다.

理數가 卦爻의 근원이자 卦를 낳는 이치에 대하여 『주역』을 근거로 고찰해보면,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天道를 表象하는 重天乾卦(☰)에서는 十을 體로 해서 九를 쓴다는 의미에서 ‘用九’라 하였으며, 地道를 表象하는 重地坤卦(☷)에서는 五를 體로 해서 六을 쓴다는 의미에서 ‘用六’이라 하여, 卦爻原理가 河圖의 體十用九原理와 洛書의 體五用六原理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리고 卦爻原理의 기본이 되는 陽爻(☰)와 陰爻(☷)의 이름을 ‘九’과 ‘六’로 밝히고 있으며, 六爻重卦에서는 陽爻를 그 위치에 따라 ‘初九·九二·九三·九四·九五·上九’로, 陰爻를 그 위치에 따라 ‘初六·六二·六三·六四·六五·上六’으로 표상하여 爻의 이름과 위치를 數로 표상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⁵²⁾

49)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河圖洛書節, “況卦源於數, 卦成之後, 分配方位.”

50)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洛書七八九六迭爲消長圖節, “滉按此章, 因數分卦, 最爲要緊之義.”

51) 河圖洛書의 倒逆生成作用에서 河圖의 作用은 倒生逆成作用으로 體十用九이며, 洛書의 作用은 逆生倒成作用으로 體五用六이기 때문에 十과 五가 九와 六작용의 本體數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用九는 天道인 重天乾卦의 작용이고 用六은 地道인 重地坤卦의 작용이기에 十과 五는 乾·坤卦의 體로서 天地를 象徵한다고 하겠다(林炳學, 「易學의 河圖洛書原理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78).

또한 퇴계는 『계몽전의』에서 數에는 陰陽五行이 있어 방위가 있고, 卦에는 四象八卦가 있어 방위가 있다고 하여, 陰陽의 數는 五行生成의 이치를 갖추고 오묘하게 승하여 配分된 것이 河圖의 數이고, 陰陽의 기운이 또한 자연의 오묘함을 얻어 老少로 配分되어 象을 이룬 것이 八卦의 象이라고 하였다. 즉, 陰陽五行은 본래 河圖의 理數에 근원한 것이며, 四象八卦는 橫卦의 圖象에서 연원한 까닭으로 數의 陰陽(生成)五行과 卦의 四象八卦를 마땅히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胡氏의 老少陰陽의 四象八卦는 橫卦의 도상에 연원하지 않고 직접 河圖의 五行數에 연결한 것은 서로 섞여서 혼동하여 말한 것이며, 五行生成의 數와 八卦가 生한 數를 역시 혼동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⁵³⁾

河圖와 先天八卦圖는 이미 송대 역학의 근본문제이자 본질적 내용으로 河圖와 先天八卦圖를 고찰하는 것은 송대 역학의 요체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유들은 『易學啓蒙』을 註解하면서 參五錯綜하는 그 이치를 해명하지 못하였으나 퇴계에 의해서 橫圖 成卦의 이치를 밝힘으로써 河圖 五行生成의 理數와 先天 四象八卦의 位數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종합하고 그 연관을 연구하여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易理의 오묘한 뜻을 闡明하게 된 것이다.⁵⁴⁾

한편 퇴계의 ‘卦源於數說’은 북송의 정이천이 주장한 ‘상이 있는 이후에 수가 있다’는 ‘有象以後有數說’과는 다른 입장이다.

퇴계는 程子の 설에 대하여 “강절의 학술을 두 程子가 귀하게 여기지 않

52) 그리고 爻의 이름은 ‘九’와 ‘六’으로 서로 다르지만, 爻의 위치는 ‘初’, ‘二’, ‘三’, ‘四’, ‘五’, ‘上’으로 같은 점에서도 河圖洛書를 구성하는 數는 같지만 그 數가 가지는 哲學的 의미가 다른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53)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河圖行合節, “按胡氏說, 圖之象當位, 書之象不當位, 兩象字作五行生成之數, 看圖之象不協卦, 書之象協卦, 兩象字作四象生八卦, 看同一象字, 或作五行, 或作四象, 何也, 豈不以五行生成之七八九六, 卽四象之七八九六故, 四數之分居四方也, 五行與四象或可參互而言之故耶, 亦如下文則河圖章註, 胡氏說, 河圖二象之居于東北者, 陰之老少也, 以四象言之其下, 繼云水木各一其象則以五行言, 二象之居于西南者, 陽之老少也, 以四象言之, 其下繼云金火互通其象則又以五行言, 此亦二者, 參互言之之證也.”

54) 柳南相, 앞의 논문, p.297.

는 것은 다만 推算하여 미래를 아는 술법 그것만이 아니라, 數學 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대개 理가 있으면 곧 氣가 있고, 氣가 있으면 곧 數도 있는 것이어서, 理가 氣를 버리고는 혼자 작동할 수 없거늘 어찌 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보낸 글에서 이른바 '數가 어찌 理밖의 일이겠는가'라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에 있을 겁니다. 다만 理에 위주하면 數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 河圖洛書에 이르서는 이것이 곧 理數의 근원이고 聖인이 『周易』 繫辭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버리고 『周易』을 배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程子가 강철에 대하여 이것을 함께 강론하여 밝히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朱子에 이르른 연후에 크게 闡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듣게 하기 위해서 일까요? …… 회암처럼 理를 위주로 하면서 數까지 밝히는 그러한 것을 또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⁵⁵⁾라고 하여, 程子가 河圖洛書의 理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河圖洛書의 數를 철학적 理數가 아닌 산술적 계산수 이론을 만들어 讖緯說 등에 건강부회한 漢代의 학자들이나, 의리의 한 쪽으로만 치우친 후대의 왕필과 정이천의 易說은 모두 문제가 됨을 지적한 朱子의 견해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55) 『退溪全書』, 권25, 書, 答鄭子中別紙, “康節之術, 二程不貴, 非獨指推算知來之術, 只數學亦不以爲貴, 蓋有理便有氣, 有氣便有數, 理不能遺氣以獨行, 亦何能遺卻數耶, 來喻所謂數豈理外事者, 正是如此, 但主於理, 則包數在其中, 其或有包不得處, 不計利害, 而事皆得正, 主於數, 則其常者, 固亦理在其中, 其變者, 則鮮合於理, 而雖趨利避害, 賊倫滅義之事, 皆不憚爲之, 此二程所以不貴其術也, 然此特因其術, 而慮夫未流之弊必至於此耳, 非謂康節爲然也, 至於河圖洛書, 乃理數之原, 聖人於繫辭, 旣明言之, 其不可舍此而學易, 明矣, 而二程於康節, 并此而不與之講明, 此則不可曉, 豈此等事, 發明於天地間, 亦有待而然, 故康節才能獨得, 而至朱子然後乃大闡發, 使人人皆得而與聞之耶, 然則學者欲學堯夫主數而能該理, 固難矣, 如晦菴主理而兼明數, 又安可不務哉.”

5. 河圖洛書와 性理學 사이의 상관관계

퇴계가 존숭하고 이어받은 송대 性理學도 그 뿌리를 易學에 두고 있기 때문에 易道를 표상하고 있는 河圖洛書가 퇴계 性理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퇴계의 理氣心性論은 오직 주자의 설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性理의 오묘한 뜻을 밝혀 著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易學의 이론에 있어서 『역학계몽』에 준거하여 은미하고 오묘한 뜻을 열어서 밝히고, 또한 더 나아가 易理의 새로운 경지를 발명하여 한국역학의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다.⁵⁶⁾

이에 본 장에서는 河圖洛書와 성리학의 핵심적 내용인 太極, 理氣論, 心性論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퇴계는 우경선에게 답하면서 太極에 대하여 “太極의 이치도 역시 河圖洛書에 의거해서 성립되었다”⁵⁷⁾라고 하여, 태극의 이치가 하도낙서에 근원하였음을 밝히고, 天命圖說에서는 “黃河(河圖)와 洛水(洛書)에서 상서로운 것이 나오자, 복희씨와 우임금이 이것을 인하여 『周易』의 八卦와 『書經』의 洪範을 지었으며, 五星이 奎星에 모이자 周子가 이에 응하여 太極圖說을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圖書를 짓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반드시 聖賢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다.”⁵⁸⁾라고 하여, 河圖洛書와 ‘太極圖’가 모두 하늘의 뜻을 본받아 그려진 것이라 하였다.

퇴계는 ‘太極圖’를 해설하면서도 河圖洛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6) 柳南相, 「李退溪之啓蒙傳疑研究」, 『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第四輯, 臺灣國立師範大學, 1979, p.281 참조.

57) 『退溪全書』, 권31, 書, 答禹景善問目啓蒙, “亦是太極之理, 依圖書而立.”

58) 『退溪全書』,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敘附圖, “河洛呈瑞, 義禹因之而作易範, 五星聚奎, 周子應之而建圖說, 由是觀之, 圖書之作, 皆出於天意, 而必有聖賢者作, 然後始可爲也.”

“太極圖에서 왼쪽은 陽이 되고 오른쪽은 陰이 되는 것은 河圖洛書에 근본하였으며, …… 太極圖가 반드시 위로부터 시작된 까닭을 나는 그 이유를 말하겠다.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前後·좌우를 나누고, 인하여 뒤에 있는 子를 아래로 삼고, 앞에 있는 午를 위로 삼은 것은 河圖洛書 이하 모든 圖書가 다 그러하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은 陽氣가 처음 아래에서 생겨나 점점 자라서 위로 지극해지니 북방은 양기가 생겨나는 곳이다. 저 河圖洛書는 모두 陰陽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나, 북쪽으로부터 아래에서 시작됨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⁵⁹⁾

즉, ‘太極圖’와 河圖洛書가 모두 陰陽의 消長원리를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⁰⁾

그리고 河圖洛書는 아래에서 시작하고, ‘太極圖’와 ‘天命圖’는 위에서 시작하여 상하가 뒤바뀐 이유를 명석하게 해명하고 있다. 모든 圖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은 기준으로 前後·좌우를 나누는데, 陽氣가 처음 아래에서 생겨나 점점 자라서 위에서 극점에 이르고, 북방은 陽氣가 처음 생겨나는 곳이므로 後(子)를 아래로 삼고, 前(午)를 위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河圖洛書는 陰陽의 消長을 주로 하므로 陽을 중요시하여 아래(北)에서 시작한다. 즉 河圖洛書가 북쪽을 아래로 삼는 것은 북쪽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

59) 『退溪全書』,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敍附圖, “太極圖左爲陽右爲陰, 本於河圖洛書, …… 太極圖所以必由上始者, 請言其故自北面南而分前後左右, 仍以後子爲下前午爲上者, 河洛以下皆然也, 其所以然者, 陽氣始生於下而, 漸長以極於上北方陽氣之始生也.”

60) 金益洙 교수는 河圖의 陰陽消長原理와 太極에 대하여 “또한 河圖에서 十數가 다섯 방위로 배속된 것은 冬至점인 北方에서 一陽이 시생하니 그 待對로 夏至 점인 南方에는 二陰이 대응하여 生하고 春分 점인 東方에는 三陽이 가니 그 待對로 秋分 점인 西方에는 四陰이 되며, 그의 종합 점인 中央에는 五가 들어간다. 그리고 가운데의 五를 다섯 방위에다가 각각 더하면 北에는 六, 南에는 七, 東에는 八, 西에는 九, 中에는 十이 五를 포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五를 포위한 十을 핵심으로 하며 一三七九의 二十을 陽界로 하고, 二四六八의 二十을 陰界로 하여 圓圖를 치면 이 때에 그 중앙이 ‘太極圖’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太極圖와 河圖가 일치함을 밝히고 있다(金益洙, 「退溪의 易學觀(1)－圖·書論을 중심으로」, 『퇴계학연구』, 제3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9, p.59).

아니라 氣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근거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며, ‘太極圖’와 ‘天命圖’는 근원의 理氣가 조화의 기틀을 발하여 上天이 만물에 명하는 圖이므로 위(北)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하였다.⁶¹⁾

또한 퇴계는 ‘太極圖’와 ‘天命圖’의 방위가 전후·좌우 방위가 다른 것이 圖와 觀者 사이에 賓·主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⁶²⁾ 河圖洛書와 관련하여 해명하고 있다. 모든 圖는 북쪽이 주인이 되는데, 河圖洛書와 ‘太極圖’는 觀者도 북쪽으로부터 주인을 따라 圖를 보고 있어서 圖와 사람이 손님과 주인의 분별이 없으므로 전후·좌우와 동서·남북의 방위가 바뀌지 않으나, 이에 비해 ‘天命圖’의 경우 圖는 주인이 되어 북쪽에 있고, 觀者는 손님이 되어 남쪽에 있어서, 손님의 입장에서 주인을 향하여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보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퇴계 성리학의 理氣論을 河圖洛書와 관련하여, 퇴계는 『계몽전의』에서 河圖와 太極·兩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개 우주가 아득하고 만유의 형체가 없을 즈음에 五十五의 수에 이미 十五가 가운데 갖추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太極이다. 그 五十五의 수를 十五의 밖에 서로 섞어서 배치하니 이에 비로소 陰과 陽의 형상이 뚜렷하고 검고 흰 구별이 분명하여 一三七九는 陽이 되며, 二四六八은 陰이 되니 이른바 兩儀이다. 대개 兩儀는 太極에서 생긴 것이다.”⁶³⁾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河圖 本體數 十五를 太極이라 하고, 四象作用數인

61) 금장대, 「퇴계에 있어서 <태극도>와 <천명도>의 해석과 상관성」, 『퇴계학 연구논총—제1권 퇴계의 철학사상(上)』,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p.583.

62) 『退溪全書』,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敍, “非方位之易置也, 第因觀者之於圖, 有賓主之異耳.”

63) 李滉, 앞의 책, 本圖書第一, 洛書四方之正四隅之偏, “蓋冲漠無朕之際, 五十有五之數, 已具於十五之中矣, 是所謂太極也, 及其五十有五之數, 形布互錯於十五之外, 於是陰陽之象燦然, 黑白之分明, 一三七九爲陽, 二四六八爲陰, 所謂兩儀也, 蓋兩儀太極之所生者也.”

一·三·七·九의 陽數와 二·四·六·八의 陰數를 兩儀(陰陽)로 규정하여, 理와 氣를 河圖의 圖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朱子가 우주의 근본원리인 理는 太極이다⁶⁴⁾라고 규정한 것과 또 한 “太極이 動하여 陽을 낳고 動이 다하여 靜하게 되며, 靜하여서는 陰을 낳는다.”⁶⁵⁾라고 하여, 太極은 理이고, 動靜과 陰陽은 氣에 간주되는 것을 계승하여⁶⁶⁾ 이것을 河圖의 理數와 연계하여 理氣論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데 퇴계의 理氣論이 朱子의 理氣論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理優位論的 理氣二元論에 바탕한 ‘理發說’을 주창한 것이라 하겠다.⁶⁷⁾ 그는 우경선과의 문답에서 “『周易』에서 말한 한번 陰이 되고 한번 陽이 되는 것을 道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陰陽은 道가 아니라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所以로서의 理가 道이다”⁶⁸⁾라고 한 것이나, 李達 李天機에게 “太極에 動과 靜이 있는 것은 太極이 스스로 동정하는 것이며, 天命이 流行하는 것은 天命이 스스로 유행하는 것이다”⁶⁹⁾라고 말한 것에서도 理가 절대적 실체와 같은 명사적 의미와 그 실체의 존재의 자발적인 발의와 자기 표현으로서의 現行과 같은 동사의 기능을 다 갖고 있음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尊理에 근거한 ‘理發說’을 河圖洛書論과 연관해 보면, 河圖의 本體數 十五를 太極으로 理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먼저 찾

64) 『性理大全』, 권26, 太極, “朱子曰太極只是一箇理字.”

65) 위의 책, 권26, 理氣,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66) 李完裁, 「퇴계의 理개념에 대하여」, 『퇴계학 연구논총 -제1권 퇴계의 철학사상(上)』,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p.346참조.

67) “理는 ‘自發, 自動, 自到, 能生, 先動’하는 살아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작용보다 本體를 위주로 體用관계를 논하였으며, 理를 절대시하고 理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尊理哲學을 수립하였다.”(송인창, 「퇴계 리기론의 역학적 이해」, 『철학논총』, 제26집, 새한철학회, 2001, p.34 참조)

68) 『退溪全書』, 권32, 書, 答禹景善問目, “易曰一陰一陽之爲道, 陰陽非道, 所以一陰而一陽之理卽道.”

69) 『退溪全書』, 권13, 書, 答李達李天機, “太極之有動靜, 太極自動靜也, 天命之流行, 天命之自流也.”

을 수 있겠다. 즉, 河圖 本體數 十五는 순수 河圖의 本體數인 十과 洛書의 本體數인 五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河圖가 本體를 위주로 표상한 圖라면, 洛書는 四象作用을 위주로 표상된 圖이므로 十五의 理數 속에는 本體와 作用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理의 총제인 十五 太極은 本體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作用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이 해명되는 것이다.

또한 河圖洛書가 서로 體用의 관계이지만, 作用을 위주로 하는 洛書는 河圖의 十五 本體數 내에서 五를 本體로 하여 四象作用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河圖 本體數 十五를 理로 규정한 것은 작용보다는 本體를 중심으로 體用관계를 논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河圖洛書의 관계를 바탕으로 理의 절대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⁷⁰⁾

마지막으로 퇴계 성리학의 心性論과 河圖洛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퇴계는 ‘心統性情圖’를 설명하면서

“心統性情圖를 깨우쳐 제시한 것은 河圖洛書의 位에 의거한 것이니 …… 圖에 근원하여 心統性情의 이치를 밝힌 것이 이와 같을 뿐이다.”⁷¹⁾

라고 하여, ‘心統性情圖’이 河圖洛書에 근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圖로써 주인이 되어 북쪽에 있고 觀者는 손님이 되어 남쪽에 있으니 손님으로부터 주인을 향하고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보는 것은 곧 圖의 上面이 북쪽이 되고 智가 되며, 下面은 남쪽이 되고 禮가 되며, 圖의 왼쪽은 곧 觀者의 오른쪽이니 동쪽이 되고 仁이 되며, 圖의 오른쪽은 觀者의 왼쪽이니 서쪽이 되고 義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仁義禮智의 근본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70) 송인창, 「퇴계 리기론의 역학적 이해」, 『철학논총』 제26집, 새한철학회, 2001, p.44 참조.

71) 『退溪全書』, 권18, 書, 答奇明論改心統性情圖 “示諭心統性情圖, 依河圖洛書之位, …… 圖本以明心統性情之名理如此而已.”

觀者의 向背가 변화함에 말미암은 것이고 仁義禮智 四德의 위치는 또한 변화에 따를 뿐이다. 그러한 즉 위의 智·아래의 禮는 인하여 따르고, 仁은 왼쪽, 義는 오른쪽이 되어 마땅히 서로 바뀌어지는 것이다.”⁷²⁾라고 하여, 河圖의 圖象에 표상된 四象原理와 人道인 仁禮義智 四德原理와 결부하여, 인간 本性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도 河圖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河圖 도상에서 1·6水는 智에, 2·7火는 禮에, 3·8木은 仁에, 4·9金은 義에, 5·10土는 中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天道 四象原理에 人道 四德原理를 배속한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重天乾卦(☰) 文言에서 元亨利貞 四象原理를 仁禮義智 四德原理로 대응한 것과⁷³⁾ 같은 이치라 하겠다.

또 河圖洛書의 체용원리를 心性에 그대로 적용하여 “마음에 體用이 있다는 先儒의 말씀은 분명하고 모두 그 말씀의 所從來가 있으니, 寂과 感을 체용이라 한 것은 『주역』에 근본하였고, 動과 靜를 체용이라 한 것은 『禮記』 『戴記』에 근본하였고, 未發과 已發을 체용이라 한 것은 子思 『中庸』에 근본하였고, 性과 情을 체용이라 한 것은 『孟子』에 근본하였으니 이는 모두 心의 體用說이다.”⁷⁴⁾라고 하여, 心의 體用은 『周易』, 『예기』, 『중용』, 『맹자』에서 천명되었음을 밝히고,⁷⁵⁾ 心의 체용인 寂感, 動靜, 性情, 未發已發을 太極으로 통일하여 心을 太極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였다.⁷⁶⁾

72) 『退溪全書』, 권30, 書, 答金而精, “以圖爲主在北, 而觀者爲賓在南, 自賓而向主, 自南而觀北, 則圖之上面, 爲北爲智, 下面爲南爲禮, 圖之左卽觀者之右, 爲東爲仁, 圖之右卽觀者之左, 爲西爲義, 此非仁義禮智本位之有互易, 由觀者之向背有變, 而四者位置亦隨變耳, 然則上智下禮仍前而仁左義右, 當互換矣.”

73) 『周易』, 「重天乾卦」, 文言, “文言曰元者 善之長也 | 오 亨者 嘉之會也 | 오 利者 義之和也 | 오 貞者 事之幹也 | 니 君子 | 體仁이 足以長人이며 嘉會 | 足以合禮 | 며 利物이 足以和義 | 며 貞固 | 足以幹事 | 니 君子 | 行此四德者 | 라 故曰 乾元亨利貞이니라.”

74) 『退溪全書』, 권41, 心無體用辨, “先儒心有體用之說, 明之而其說, 皆有所從來, 其以寂感爲體用, 本於大易, 以動靜爲體用, 本於戴記, 以未發已發爲體用, 本於子思, 以性情爲體用, 本於孟子, 皆心之體用也.”

75) 유명중, 『퇴계의 일생과 철학체계』, 현대미학사, 2000, p.194.

또한 “주신 말씀에 心統性情圖는 河圖와 洛書의 位에 따라 圖와 도를 보는 사람이 모두 남쪽을 향하는 것이 순조롭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디 나의 옛날 그림의 위치와 방위입니다.”⁷⁷⁾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心統性情圖로 말하자면, 河圖洛書를 모방해서 만든 옛날 그림과 다른 점은 불가한 것이 없으나, 다만 禮와 智 두 가지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⁷⁸⁾라고 하여, 河圖洛書의 圖象이 표상하는 원리를 통해 仁禮義智 四德原理를 해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退溪易學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河圖洛書에 대한 퇴계의 해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퇴계는 『계몽전의』을 저술하여 송대 주자의 圖書易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河圖洛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자신의 易學이 『周易』에서 밝히고 있는 河圖洛書에 근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퇴계가 河圖洛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힌 ‘金火相爲用’을 비롯하여 ‘河圖行合’, ‘卦源於數’·‘因數分卦’ 등은 宋代 圖書易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퇴계역학의 결정체라고 하겠다.

먼저 河圖 圖象에서 밝힌 ‘河圖行合’은 河圖가 天地陰陽의 合德原理를 위주로 표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며, 洛書 도상에서 밝힌 南西가 서로

76) 『退溪全書』, 권31, 書, “心靜而太極之體具, 心動而太極之用行, 故云心爲太極.”

77) 『退溪全書』, 권18, 答奇明論改心統性情圖, “示諭心統性情圖, 依河圖洛書之位, 圖與觀者皆以向南爲順, 此固混舊圖之位向也.”

78) 『退溪全書』, 권18, 答奇明論改心統性情圖, “今是圖也舊倣河洛者, 他無有不可, 獨禮智二者之難處, 如上所云.”

변하여 통한다는 ‘南西通變’은 ‘金火相爲用’의 원리를 밝히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河圖와 洛書의 관계를 밝히면서 河圖洛書가 서로 體用的 관계라는 ‘圖書相爲體用’은 朱子の 『易學啓蒙』을 계승한 것이며, ‘九 金’과 ‘七 火’가 서로 交易되는 ‘金火相爲用’을 밝힌 것은 河圖洛書에 대한 퇴계역학의 특징적 해석임을 알 수 있다.

河圖洛書의 理數와 卦爻의 관계에서 퇴계는 항상 河圖洛書의 理數에 근원하여 卦가 이루어 졌다는 ‘卦源於數’와 理數로 인하여 卦가 나누어졌다는 ‘因數分卦’를 주장하여, 河圖의 理數에 근거하여 先天八卦의 원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河圖洛書와 性理學의 상관관계에서는 性理學의 핵심 개념인 太極, 理氣, 心性 등을 설명하면서 河圖洛書의 理數와 圖象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太極圖를 河圖洛書의 圖象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며, 理氣論에서는 太極(理)과 兩儀(氣)를 직접 河圖의 理數에 결부하여 밝히고 있으며, 心性論에서도 河圖洛書 도상에 표상된 四象原理와 四德原理를 결부하여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퇴계는 河圖洛書의 연구를 통해 『周易』에 秘藏된 聖人之道의 은미하고 오묘한⁷⁹⁾ 뜻을 열어 밝히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河圖洛書論은 漢代 이후 易學史에서 망각된 河圖洛書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易學史的 的의가 있다고 하겠다.

79) 『周易』, 「繫辭上」, 第十一章, “聖人이 以次로 洗心하여 退藏於密하며.”

【 참고 문헌 】

- 『周易』.
『中庸』.
『大學』.
『易學啓蒙』.
『啓蒙傳疑』.
『退溪全書』.
유명중, 『퇴계의 일생과 철학체계』, 현대미학사, 2000.
琴章泰, 「퇴계에 있어서 <태극도>와 <친명도>의 해석과 상관성」, 『퇴계학 연구논총-제1권 퇴계의 철학사상(上)』,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金滿山, 「易學의 時間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金益洙, 「退溪의 易學觀(1)-圖·書論을 중심으로」, 『퇴계학연구』 제3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
柳南相, 「李退溪之啓蒙傳疑研究」, 『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第四輯, 臺灣國立師範大學, 1979.
柳南相, 「正易思想의 根本問題」, 『論文集』 제7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0.
송인창, 「退溪 理氣論의 易學的 이해」, 『철학논총』 제26집, 새한철학회, 2001.
李完裁, 「退溪의 理개념에 대하여」, 『퇴계학 연구논총 -제1권 퇴계의 철학사상(上)』,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李鉉中, 「曆數原理의 表象인 圖書原理」, 『철학논총』 제24집 제2권, 새한철학회, 2001.
李鉉中, 「易學의 曆數原理와 卦象原理」, 『동서철학연구』 제29호, 한국동서철학회, 2003.
林炳學, 「易學의 河圖洛書原理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명식, 「周易에 대한 退溪의 義理的 觀點」, 『退溪學報』, 제115집, 퇴계학연구원, 2004.

Abstract

Toegye's Hetu-Luoshu and It's Meaning of Neo-Confucianism

Lim, Byeong-Hak

Toegye's I Ching handed the torch to Chu Hsi's I Ching the Sung-dynasty, but he studied deep into Hetu-Luoshu, whivh is based on the Book of Changes(Zhouyi, 周易).

Hetu-Luoshu is composed with numbers. The number symbolizes the concept of time and the time is a system of the moral doctrine of changes(易道). Accordingly, we can know that Hetu-Luoshu is a symbol of moral doctrine in the bible of Fundamental Confucianism.

Toegye said Hetuxíng hé(河圖行合) that investigated the origin of Hetu.

Toegye's referred to 'Tu-shuxiangwéTi-yòng(圖書相爲體用)' and 'Jmhuǒxiāngwéyòng(金火相爲用)'. He emphasized that Hetu-Luoshu is made up of the structure of Ti-yòng(體用), which is an original thought of Toegye's I Ching.

Toegye said 'Guàyuányúshù(卦源於數)' and 'Yinshùfēnguà(因數分卦)'. He explained that Guàxiàng(卦象) is based on the number's of Hetu-Luoshu.

Toegye's Theory of Human Nature originated in Hetu-Luoshu and expressed the theory of Human Nature's(Neo-Confucianism) intention.

Toegye I Ching broke new ground through studying Hetu-Luoshu and opened a whoie new world of Hetu-Luoshu.

The study of Toegye's Hetu-Luoshu shows the true originality of Korea's Confucianism. And it demonstrated the creativity of Korea's Confucianism.

Key Word

Toegye, I Ching, Hetu-Luoshu(河圖洛書), Hetuxíng hé(河圖行合), Jmhuǒxiāngwéyòng(金火相爲用), Guàyuányúshù(卦源於數)

- 논문투고일 : 2009.12.30. 심사시작일 : 2010.1.29. 심사완료일 : 2010.2.8.